



도, 2공항 공론화 청원 거부… 의회 행보 촉각

도, 의회에 불수용 입장 전달… “또다른 갈등 낳을 우려”
공은 의회로 넘어가…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의회가 채택한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공식 거부하면서 의회가 공을 넘겨받게 됐다. 국토부가 이달중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의회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 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의 공론조사 요구는 도민사회의 오랜 공론화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30여년을 기다려 온 도민에게 찬반의 의견을 다시 물어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제주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공항 인프라 확충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후보들과 정당들의 한결같은 공약사업이었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수십 차례의 설명과 공청, 토론 등을 거친 공론화의 결실”임도 강조했다. 이어 “도에서 기본계

획 고시 직전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찬·반을 떠나 도민사회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해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발전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6일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8일 제주에서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도 본격화할 예정이며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9월 2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청원은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제주시의회 차원에서 제주공항 시설 확충과 관련 합리·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의 합의과정에 착수해줄 것을 요청하며 제출한 것으로, 도민 1만283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당시 도의회는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로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근본대책 마련을”

국민연금 가입률 30% 그쳐
오영훈 의원, 국감서 주문

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30%에 그쳐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

주시을·사진)은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업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전체 어가인구(20세~59세) 4만6000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어업인은 1만4000명으로 30.4%를 차지했다.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71%)과 비교할 때 어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

이다. 2018년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35.6%) 보다도 낮은 수치다.

또한 어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 금액은 2018년 29만6000원으로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급 금액인 50만9000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어촌이 위기를 넘어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업인 노후소득 보장은 국가적 사명”이라며 “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과 수급액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가 근본적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정책 수립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농어업 지키려면 개도국 지위 포기 안돼”

위성곤 의원, 국감서 촉구

국내 1차 산업 수호를 위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

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WTO상 개도국 우대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계속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의 행정명령 시한은 이달 23일이다.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WB) 기준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교역(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경우를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 모두 해당한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려면 WTO 차기 협상이 열려야 하는데 협상 개시 시점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선언이 곧 우리 농어업에 대한 포기 선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애조로 첨단진입로~변영로 11일 개통… “교통난 해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라동(첨단 진입로)에서 봉개동(변영로)을 연결하는 4.2km 구간이 오는 11일 0시를 기해 개통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시 도심 교통량의 분산 처리를 위해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를 1999년부터 추진해 왔다. 전체 26.3km를 6개 구간으로 나눠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2179억원을 들여 18.3km(1~4구간)을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아라동 첨단진입로에서 변영로에 이르는 5구간은 2013년 4월에 착수됐다. 사업비는 879억원(국비 529 원, 지방비 350억원)이다.

주요 시설은 봉개교(PSC법, 49m) 등 교량 12개소(육교 6개, 하천교 6개)와 지류소 2개소(19,900톤), 입체연결로(320m) 등이다.

제주도는 해당 구간 개통을 통해 제주시 동부지역 일주도로 통과교통을 우회처리 할 수 있어, 도심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첨단진입로에서 변영로까지 주행시간 단축(2.1km, 6분)으로 통행 편의제고와 물류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제주시 동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서귀포복합가족센터 건립 등 ‘청신호’ 내년 생활SOC 사업 국비 290억 확보

주민숙원 등 19개 사업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국비 290억원이 확보돼 청신호가 켜졌다.

제주도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서귀포 복합가족센터 등 3개 사업이 최종 확정된 것을 비롯해 시설사업 총 19곳의 국비 290억원이 확보됐다고 6일 밝혔다. 연차별로 보면 2020년에는 국비 286억9500만원, 2021년 이후에는 245억8400만원 등 총 535억9900만원이 투입된다. 지방비 718억9100만원이 더해지면 총사업비는 1254억9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결과로, 신청사업 1개를 제외한 19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한림리 주거지주차장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기존 주거지 및 도심지 내

1320여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됐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시내의 주차장의 경우 행복주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센터는 애월읍에 장애인용과 비장애인용 각 1곳씩과 표선면, 남원읍에 비장애인용 각 1곳씩 지어진다. 이 밖에 법환동에 가족센터, 서귀포시 중앙도서관에 공공도서관이 시설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생활SOC 조사 및 확충방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지역별로 필요한 생활SOC를 중심으로 국비사업 신청 등 생활SOC를 확충해서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말한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알림

제주의 속살 거닐며 힐링 하세요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12차 참가자 모집

한라일보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격주로 주말을 이용한 힐링 프로그램인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를 실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생태관광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에코투어 프로그램은 제주자연의 속살을 직접 보고 걸으면서 일상의 쾄든 삶을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프로그램 참가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차 에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10월 19일 08시 ~ 16시
▶대 상: 국내외 관광객 및 제주도민 (20세 이상 성인 참여 가능)
▶모집인원: 40명 (선착순 마감)
▶코 스: 제주아트랜드 입구 ~ 가문이오름 ~ 목장길 - 진평천 ~ 농로 ~ 갑마장길 - 대륙산 - 갑마장길 - 행기머재
▶집 결 지: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08시 대형버스로 이동
▶준 비 물: 배낭, 등산화,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신청기간: 2019년 10월 7일 ~ 10월 15일
▶참가절차: 한라일보 인터넷 에코투어 홈페이지(<http://ecotour.ihalla.com>)
▶참 가 비: 1만2천원 (여행자보험·중식비 등 포함)
▶입금계좌: 농협 301-0104-3643-81 (예금주 : 한라일보사)
▶문 의: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사무국 ☎ 064)750-2291, 2151

한라일보

태양광 바로알기

허위·과장·사칭 광고 사례 및 대응방안

우리집에 태양광을 공짜로 설치해 준다던데 진짜인가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고연령층 대상으로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는 허위광고 사례

정부보조금 사업에도 소비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정부사업을 하는 업체가 맞나요?

무자격업체가 공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전 등)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는사업인 것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확인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064-748-4695)

☑ 허위·과장·사칭에 따른 피해접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3기 제주어 심화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제주어 홍보·확산과 전승에 동참할, 제주어 심화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과정을 수강한 수료생은 우리 (사)제주어보존회에 학점을 두며, 제주어 강사가 필요한 곳에 우선 배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간 및 일정

·기간: 2019년 10월 21일 ~ 11월 27일

·일시: 매주 월요일, 수요일(2회) 오후 6:30~9:30(3시간)

·장소: (사)제주어보존회 교육장(연동, 김달출여협빌딩 3층))

■ 수강료 : 100,000원

■ 지원자격

제주어 기본교육과정 수료자, 제주어의 이해와 표현 전문과정 수료자도 가능

■ 접수 및 접수기간

·접수처: (사)제주어보존회 전용통장으로 계좌입금

·입금계좌번호: 농협 301-0145-1448-51(제주어보존회)

·접수기간: 2019년 10월 2일 ~ 10월 20일

■ 문 의

·사무국장 김정숙 010-3173-6291

·총무부장 최혜숙 010-6690-2642 교육홍보부장 권문철 010-3938-5696

■ 교육내용

·제주어의 자모음과 구술철사(고재환 박사)

·때기림소 ‘-오, -ㄴ’과 어미들의 호응에 대한 고찰(송상조 박사)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강정희 교수)

·언어의 다양성(고동호 교수)

·제주어의 이해(문순덕 박사)

·제주설화 이야기(박기(김창집 작가))

·제주어 글자(박기(김창집), 영도경미(개 편집위원장))

·「문학작품 제주어 번역, 실습(강정희 제주어보존회 지문위원)

·「흔디 배우는 제주어, 실습(이종실 제주어보존회 상임이사)

·제주어 지도법(양창용 제주대학교 교수)

·수강료 계좌입금과 동시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강의 등록일(10월 20일)까지는 환불 가능하나 그 이후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본 교육 수료자는 본회 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수강 신청하시는 분은 입금하시고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사단법인 제주어보존회 이사장 김 정 민

혈육의 향기, 소중한 인연

고씨조천음중친가족 친선단합대회개최

황금빛 향기 그윽한 초추절기를 맞아 고씨종친님 가정엔 강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 종친회에서는 소중한 모습들끼리 함께 모여 혈육의 정을 나누며 친목도 다지는 단합의 장을 마련하오니 종친님들 가족 동반 나오셔서 崇祖尙門(송조상문)의 정신이 더욱 빛나는 뜻 깊은 자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 종친 동반 참가 환영합니다.

☐ 일 시 2019. 10. 09.(수) 오전 10시 30분 ☆우천시도 시행

☐ 장 소 조천음 함림리 소재-삼영산업 별장(함대로3길 99-61)

- 함덕농협하이마트프기고 우회전-한라산 방향(와산쪽)-시내버스 종점-안내맷길

☐ 참석대상 고씨조천음 연고 출신 및 고씨 종친 모두 (가족동반 환영)

☐ 대회진행 경기 운동(4km), 노래자랑, 율놀이, 보물찾기 등

☐ 중식 및 기념품, 상품제공

※ 연락처

회 장 고민립 : 010-5260-5722

총무이사 고경호 : 010-5661-2240

홍보이사 고인석 : 010-4693-0823

사업이사 고봉진 : 011-693-1791

제주고씨조천음중친회 회장 고 민 립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제2지역 합동월례회 및 제23회 한마음축제

아 래

■ 일 시 : 2019년 10월 12일(토요일) 10시

■ 장 소 : 대정문화생활체육관

■ 주 최 : 국제라이온협회 354-G지구 제2지역

■ 주 관 : 모슬포라이온스클럽 (T.794-3804, F.792-4695)

국제 라이온스협회 354-G 지구

제2지역 부 총 재 이 경 철 L

제2지역 직전부총재 송 월 건 L

제1지대 위 원 장 김 평 기 L

제2지대 위 원 장 김 태 연 L

제3지대 위 원 장 오 명 일 L

제2지역 총 무 문 석 전 L

서귀포라이온스클럽 회장 한희철 L 모슬포라이온스클럽 회장 문원진 L

중문 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수길 L 안덕 라이온스클럽 회장 강경수 L

서귀포백록라이온스클럽 회장 조승일 L 이어도라이온스클럽 회장 채길자 L

제주송악라이온스클럽 회장 조순애 L 제주천체연라이온스클럽 회장 양인정 L